지뢰밭, 아이들 뛰노는 '생명의 땅'으로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1차년도 지뢰제거 사업' 완수

지뢰로 가득했던 '공포의 땅'이 아이들이 자라나고 물이 샘솟는 '생명의 땅'으로 재탄생했다.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가 지난 2014년부터 캄보디아서 실시한 지뢰제거 사업의 뜻 깊은 결실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3년간 추진한 캄보디아 1차년도 지뢰제거 사업을 10월 26일 완수했다.

지구촌공생회가 캄보디아 지뢰사업을 처음 실시한 것은 2013년. 이사장 월주 스님의 만해평화대상 수상 당시, 공동수상자인 캄보디아 지뢰제거전문가 아키라 씨를 통해 현지 지뢰의 심각성에 대해 접하면서부터다. 이후 지구촌공생회는 캄보디아 캄보디아지뢰제거연대(CSHD)와 협약을 맺고 3만 달러(한화 약 3,400만원)를 지원, 1만8000평 규모의 2개 마을 지뢰를 제거했다.

다음해인 2014년부터 지구촌공생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을 받아 파죽지세로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2014년 9개 마을 7만2000여 평, 2015년 9개 마을 6만평, 2016년 9개 마을 12만여 평 지뢰를 제거한 것. 3년 간 총 27개 마을 25만2000여 평 지뢰를 제거하며, 첫 목표였던 15개 마을 13만6000여 평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로써 지구촌공생회가 현재까지 총 244기 지뢰와 1,061기 불발탄, 9만8,317개 폭발물 및 무기류를 제거, 2만2,755명에게 안전한 삶의 터를 제공했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캄보디아는 베트남전 및 내전 등 30년 간 전쟁으로 약 600만 개 지뢰와 불발탄이 매설된 것으로 추측된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뢰 및 불발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여 명이며, 지금도 매년 100명 이상 죽거나 절단장애를 입는다"며 "특히 지뢰 매설 지역은 농사를 짓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수 없어 캄보디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구촌공생회는 지뢰 제거가 완료된 지역에 교육 · 식수시설 등 건립하며, 낙후 지역을 빈곤층 주민들을 위한 거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름하여 '공생평화마을'이다.

2013년 CSHD와 협약 맺고 착수
2014년 코이카 지원받아 사업 확대
현재까지 25만2000평 지뢰제거
우수성 인정… 2차년도 계획 확정

지구촌공생회가 자부담 2억5000여만 원 포함 5억 원을 들여 실시한 공생평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라 현재까지 △동통 수다라초교 △룸첵초교 △따떼우초교 △찌리우공생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6기 생명의 우물이 건립됐다. 특히 전기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동통 수다라초교와 룸첵초교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촌공생회는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국경지역 초등학교 대상 사고 예방 교육도 20차례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뢰제거사업 기간 중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수, 현지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지구촌공생회가 2014년부터 실시한 캄보디아 1차년도 지뢰제거 사업이 완수됐다. 사진은 지구촌공생회 지뢰제거활동가들 모습.

캄보디아 1차년도(2014~2016) 지뢰제거사업 경과

2013	2개 마을, 1만8000여 평 지뢰 제거
2014	9개 마을, 7만2000여 평 지뢰 제거
2015	9개 마을, 6만여 평 지뢰 제거 동통 수다라 · 룸첵 · 따떼우 초교, 찌리우공생 유치원 등 4개 건립 생명의 우물 3기 건립
2016	9개 마을, 12만여 평 지뢰 제거 동통 수다라 · 룸첵 초교에 태양광 시설 건립(진행 중) 생명의 우물 3기 건립

11살 때 지뢰사고로 오른팔과 오른쪽 눈을 잃었으나 현재 지구촌공생회 지뢰제거활동가로 참여 중인 앤 포이(28 · 남) 씨는 "어린 시절엔 오른손을 쓸 수 없어 '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낙담했지만, 지금은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뢰제거사업은 사업 효과성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7~2019년 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지뢰제거 2차년도 사업 진행이 확정됐다. 지원규모는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년간 2억5000여만 원이다. 이와 관련 지구촌공생회 측은 "지뢰제거사업 자체가 생명평화사상을 바탕으로 한 평화운동이란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 밝혔다.

한편 2003년 10월 30일 창립한 지구촌공생회는 올해 13주년을 맞았다. 현재 캄보디아 · 라오스 · 몽골 · 케냐 · 미얀마 · 네팔 총 6개 지부를 설립하고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한 교육 · 식수 · 지역개발 · 아동후원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지부를 설립한 이래 지뢰제거사업, 교육시설 건립, 생명의 우물 건립 및 사후관리, 아동결연 후원 등 실시했다.

박아름 기자

"법난기념사업 본격 시작, 오욕의 역사 치유할 것"

조계종 10 · 27법난 희생자 천도재 최초 봉행

10 · 27법난 당시 희생당한 이들의 극락왕생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0 · 27법난 천도재 및 3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법난 당시 숨진 희생자 영가를 달래는 천도재가 최초로 진행됐다.

10 · 27법난위원회는 6월 20일까지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문체부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법난 기념사업을 준비해왔다. 이번 천도재는 기념사업의 첫 행사로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 유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기획됐다.

그런 까닭에 이날 천도재에는 피해자인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피해자와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천도재 전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법률이 제정돼 스님과 불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어렵게 마련된 만큼 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들이 여법하게 진행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난위원회 위원장 지현 스님의 대독을 통해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종단에서 앞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도재 후 참석대중들이 위패 소지의식을 거행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은 올해 6월까지 피해자 인정, 의료지원금 지원, 기념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기념관 건립은 모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회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남한산성 의승군, 잊지 않겠습니다

장경사, 11월 6일 의승군문화제 개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내 전통문화 복원 불사를 진행해온 장경사가 남한산성을 축성 · 수리 · 방어한 의승군을 추모하는 행사를 연다.

장경사(주지 진광)는 11월 6일 경내에서 제5회 의승군문화제를 개최한다. 오전9시 남한산성에서 몸 바친 의승군을 추모하는 수륙대재와 오후 1시 수륙무차대법회가 연이어 진행된다.

조선 중 · 후기 수륙재 전통 복원
"남한산성 승국사찰 복원계기로"

이번 수륙대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미등 스님이 도감과 장엄 · 설단을 맡고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이 어산어장으로 참여해 전통수륙무차평등의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선 중 · 후기 남한산성을 지켜온 의승군을 위한 수륙재의 전통을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남한산성은 전국 팔도에서 모인 의승군과 관군이 각각 구역을 나누어 축성한 이래 1894년 승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산성 내 9개 사찰에 의승군이 머물며 축성, 수리, 방어해온 곳이다.

남한산성 내 9개 사찰은 구한말 의병운동의 본거지가 됐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되고 불태워졌다. 그러나 장경사만이 화마로부터 일부 전각이 남아 폐사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해왔다. 장경사는 남한산성의 불교와 불교문화를 올곧이 계승하며 유일하게 조계종 공찰로 남아 있다.

장경사 주지 진광 스님은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성 내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복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장경사는 남한산성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의승군 추모 수륙재를 비롯해 산성내 불교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함으로써 남한산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031)743-6547 · 654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독교인 불자와 불자 기독교인이 만나면?

아카마지, 11월 10일 종교다원주의 토크쇼

지난 9월 세 명의 불교학자들과 한국불교 교리논쟁의 장을 펼친 아카마지(대표 김현진)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모임을 연다.

아카마지는 11월 8일 오후 7시 서울 방배동 채식전문점 마지 2층 아카마지홀서 '기독교인 불자와 불자 기독교인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연다. 이번 모임은 다종교시대서 국내 대표적인 제도권 종교인 그리스도교와 불교 간 대화를 통해 '삶 속 종교'를 논할 예정이다.

정현경 美 유니온 신학대 교수
우희종 서울대 교수 각각 발제

이 자리에는 불교적 여성주의 신학자인 정현경 미국 유니온 신학대 교수와 '기독교인 불자'를 자처하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각각 '불교적 기독교인의 신앙과 종교' '기독교적 불자의 믿음과 종교'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후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명예교수가 총평하며, 청중과의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사회는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맡는다.

행사를 기획한 김현진 대표는 "크리스천-부디스트, 부디스트-크리스천은 우리나라서 낯선 표현이지만 서양에선 이미 일반화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다종교시대에 종교의 경계를 넘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우희종 교수는 "종교의 역사와 형태 등은 매우 다르지만 지향하는 바는 결국 진리로, 사랑으로, 평화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가슴을 열고 함께 나아갈 때 사회발전이 이뤄지듯 종교적 가치 아래서 이를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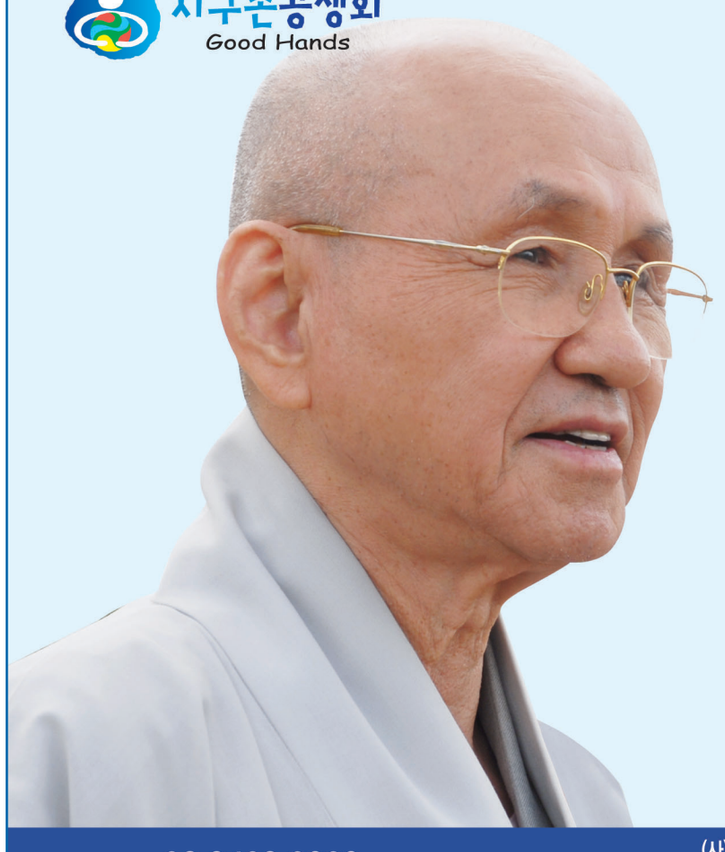
박병기 교수는 "제도종교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종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분의 대화가 제도종교에 속한 이에겐 다른 종교의 시각을, 종교가 없는 이에겐 종교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카마지는 9월 시작된 이 모임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모임은 '종교와 종교권력' '불교 안 재가불교운동' '제도종교 속 평신도 연대' 등을 주제로 이어진다.

우 교수는 "모임은 우리사회서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각 종교계 평신도들이 서로 다른 연대를 통해 변화의 단초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 (02)536-5228

윤호섭 기자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지구촌공생회 창립 13주년!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一體

천지여아동근 만물여아일체 :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지구촌 이웃 모두가 한 생명, 한 가족이라는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신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비를 실천해 온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가 지난 10월 30일 설립 1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념과 종교, 민족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 이웃 모두를 남이 아닌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깨끗한 물을 만드는 생명의 손
5개국 총 2,328 기 식수시설 건립 및 사후관리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손
8개국 총 59개 교육시설 건립 및 운영지원


변화를 일궈내는 자립의 손
10곳의 자립농장 및 사업장 운영


생명을 사랑하는 평화의 손
캄보디아 지뢰제거 사업(29개 마을, 27만여 평)

■ 후원문의 02.3409.0303
■ 후원계좌 국민은행 337101-04-019295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
농 협 100026-55-003657 (사)지구촌공생회
우리은행 1005-501-776078 (사)지구촌공생회
신한은행 100-027-705267 사단법인지구촌공생회

(사)지구촌공생회는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11개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해 식수지원, 교육지원, 지역개발사업, 긴급구호 등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 정기 후원, 홀몸어르신 식사대접, 어르신 생신잔치 등 국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함께하는 분들
이 사 장: 송월주(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 · 영화사 조실) 이 사: 도영(금산사 회주), 성타(조계종 호계원장), 설송(희방사 주지), 도원(학림사 회주), 평상(백련사 주지), 지홍(조계종 포교원장), 선묵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원행(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지현 (조계사 주지), 정념(월정사 주지), 성우(금산사 주지), 월우(대흥사 주지) 감 사: 화평(서울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도연(상주사 주지) 사무총장: 원광(심원암 주지) 사무처장: 덕림(관음사 주지) 자문위원회 : 송재준, 김영하(자문위원) 미국서부지부(지부장 현철스님), 전북지부(지부장 원광스님), 대전지부(지부장 광진스님), 대구지부(지부장 선지스님), 창원지회(지회장 정인스님), 대전1지회(지부장 도일스님), 충북지회(지회장 현진스님), 울산지회(지회장 황산스님), 서울서부지회(지회장 송재봉), 익산지회(지회장 양연옥), 군산지회(지회장 박순호), 강원영동지회(지회장 권동용) 그리고 18,000여명의 후원회원과 함께합니다. www.goodhands.or.kr

월주 큰스님의 80년 인생과 60년 수행의 향기를 담은 3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거북털 북털
송월주 회고록
정가 30,000원
송월주 지음 / 조계종 출판사


太空
태공 송월주 대종사 사진집
정가 35,000원
송월주 지음 / 대종사 사진집 간행위원회 (엮음) 조계종출판사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다
태공 월주 큰스님 법문집
정가 16,500원
송월주 지음 / 민족사